

7. 말씀 앞에서 –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13: 1-15, 23-25, 31

1. 그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밭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3.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4.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6.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단사스다 삼십이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지라
8.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10.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밭을 농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2.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13.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맛다냐의 손자 삽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14. 내 하나님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5.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숫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23. 그 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4.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5.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땅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31.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유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혁’이죠. 개혁이라는 것은 삶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개혁이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철저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관점이죠.

우리가 잘 아는 ‘펭귄’이라는 놈은 새인데 날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멍청한 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물에서 나는 새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삶을 개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농담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딸을 데리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합니다. 돈까스를 시키고 음식이 나왔는데, 그 순간 멋진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곡이야?”

아빠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응, 돼지 고기지!”

음악을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죠. 연세든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전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이유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래위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세우는 일, 제사를 세우는 일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온 백성들이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커더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제인 초막절을 지키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없었던 영적인 부흥과 도덕적 회복,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느헤미야는 다시 바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성전을 더럽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휩쓸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게을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옛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며 달려왔던 것처럼, 다시 그 백성의 영이 무너져 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 다시 달려옵니다.

이것이 오늘 13장의 종교 개혁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여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혁’은 1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신앙

의 고백이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개혁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살아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또 타락한 백성을 바라보면서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1. 그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당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양식과 물로 광야를 헤매던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죄로 인하여 망할 것 같아 보이고, 타락한 모습으로 인하여 끝장이 날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성전 중심에서 도비야를 몰아내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골방이 있어서 소제물과 유향과 기명과 십일조로 거두어진 제물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방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도비야라는 세상의 권력자와 내통합니다. 그를 두려워하여 성전을 그에게 내어 준 것입니다.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암몬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과 분리했던 사람,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성전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바로 이런 사람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 준 것입니다. 권력과 야합한 제사장이 말입니다.

저도 제사장 직책을 수행하는 지도자이지만, 종교 개혁의 중심에는 목회자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어떤 무엇과도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과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된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장 큰 방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개혁을 했습니까? 아주 과격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세요.

8.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9.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집어 던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하는 것을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곁모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겠다는 말씀 시리즈가 끝나는 이시간 삶의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붙들고 가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개혁의 대상이 도비야였다는 것, 즉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내몰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개혁의 첫 번째는 예배가 개혁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은 성전에서부터, 예배가 잘못된 것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의 생활에서부터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업의 사장이 무척 믿음이 좋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업을 크리스천 기업으로 만들려는 의지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직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술이 오르면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맨 정신보다 훨씬 은혜스런 이야기가 된답니다. 이 사장은 이제 술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요.

술을 먹는 것이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요즘 교인들을 보면 SNS에 술 먹는 사진을 올려놓는 일을 쉽게 합니다. 술의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술을 마시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술로 만나는 사람의 관계가 죄의 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한 대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하여 묻더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건강한 경제적 사고가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식과 비트코인을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높게 되면 이 기준이 흔들립니다. 제가 주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제 가치관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 아직은 부족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고 개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배의 삶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경건과 영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성전의 중요한 방을 도비야에게 내놓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알아보니까, 도비야에게 방을 내놓은 이스라엘은 현금 생활에서 잘 못되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예워 사람들이 밭을 뜻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예워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들은 무엇이 거룩한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고, 근엄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것에 감히 손을 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대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일조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앞에서만이 우리의 정직이 회복됩니다. 거룩한 분 앞에서만이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일조를 속이는 사람, 부정직한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의 삶에서 거룩함이 상실된 증거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정직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레위인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꾸짖었을 때에, 1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꼭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끗간에 들이므로

그리고 그 드려진 예물을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해 정직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셀레마와 브다야로 창고지기를 삼았는데,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충직한 사람들로 인하여 드려진 예물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돈에 유혹받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부정직한 일은 예배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도비야에게 거룩한 성전의 방을 내놓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날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5절의 말씀,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숯틀을 밟고 꼭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타협과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아주 작은 양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날을 통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깨어진 심령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더 이상 어찌 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지요.

사막기후는 일교차가 무척 심합니다. 낮에는 덥지만 밤은 무척 춥지요.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 텐트를 치고 잡니다. 밖에는 낙타가 잡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낙타가 불쌍하다고 생각되어, 낙타가 텐트 안에 무릎을 들이미는 것을 허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무릎을 집어넣고 조금 지나면 또 하나의 다리를, 그리고 머리를 넣은 후 엉덩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는 순간 텐트는 날아가고 찬 곳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허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괴계에 대하여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비야에서 성전의 방을 내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느헤미야가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3-25절의 말씀을 보세요.

23. 그 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4.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5.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가만히 보면 중심이 흐트러짐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바뀌고 선택에 변명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 이방의 습성이 잘못된 우상 숭배가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방의 여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조상 가운데 모압여인 롯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의 피에서 예수님의 탄생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방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통하여 성스러운 이루게 될 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최우선

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을 생각하면서 조건을 먼저 찾는다든지, 결혼을 먼저 하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기에 있는 부모들 중에 선교하는 심정으로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선교의 열정이 끓어 넘쳐서 자녀를 선교지로 보내는 심정으로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조건이 아까워서 그럴싸하게 신앙적인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결혼은 선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가정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을 부모 중심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부패할 것인가? 새로워질 것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만나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끝까지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끝을 맺는 13장 31절을 보세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철을 얹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십니까?

과거는 화려한데 지금은 영적으로 바싹 말라버린 나무처럼 썩어진 모습이 아니라,

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있는 제 모습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 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그의 세간을 내던져버린 과격한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6장 19-20절을 보세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려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빨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음을 지어다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파기되었던 신앙의 원칙들을 다시 세우십시오.

원칙 중심의 삶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단의 세력을 당신의 밸아래 두게 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밸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도비야를 내어 던지겠습니다.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현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날을 지키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